예수 앞세움과 따름의 차이

(마태복음 8:18~27)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앞세움과 따름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 앞세움과 따름의 차이'
본문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마음의 동기를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정황상 이 장면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잘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라면 교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꿈에서조차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과도 참 만남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참 만남은 나병환

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나병환자는 인간사회에서 죽은 자로 여겨지며 격리되어 살아가는 자들로써 기존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형태입니다. 즉 마음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만남과 연합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만남이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만남입니다. 기존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나병환자에게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가 될 때에 비로소 참 연합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참 연합은 백부장과의 사건을 통해 묘사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권이 발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합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나병환자와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의 모습이 묘사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피하시고자 하는 만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예수님이 피하시고자 했던 군중들의 마음상태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아직 십자가 사건을 접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마태는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진단하는 청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의 열두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시면서 서기관의 결의에 대해 회의에 찬 반응을 보이십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의에 찬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서기관이 가진 오해를 바로 잡으시고자 당신의 거처를 여우나 새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앞세우고자 했는지는 20절에 나타나는 여우와 새에 대한 비유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우나 새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었습니다. 굴이나 둥지는 안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여우나 새만큼도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사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서기관의 목표와 오해를 일으킵니다.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목표는 스승으로 삼을 위대한 랍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서기관들끼리의 경쟁에서 유리함을 점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율법을 기록함을 통하여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경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위대한 랍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당시의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관찰하니 말씀의 가르침이 신선하고 권위까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게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권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한 서기관은 마음에서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예수님이 남루해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명실 공히 위대한 랍비로 추앙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남루한 모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예수님의 장래를 기대하며 측근이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훌륭한 스승은 여우의 굴이나 새의 둥지와 같은 안정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으로써의 삶에서 최고의 안정적 조건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였던 무리들은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불안과 고민과 염려가 없는 환경적 조건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한 목적지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스승을 찾아 안정된 상태를 구축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세우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의 어떤 지점에도 서기관이 원하는 안정적 조건은 결코 주어질 수가 없었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앞세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뒤에 가는 것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가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과 나병환자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나병환자와는 달리 기존의 모든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로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 형제, 친구 등의 세상의 관계들로 채워진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때에 원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 모든 관계가 형통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비단 인간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건강, 직업, 성취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목적지를 갖게 되면 이미 마음의 방향은 정해진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했으니

이제 예수님을 목적지에 이르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이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세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병환자와 같은 세상에 대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사건과도 같이 끊어진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권이 임하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관계는 하나님께 위임되고 우리의 마음은 땅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원을 가지고 목적지를 정한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앞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가능하기에 믿음 또한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가르쳐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황상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돌봐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로써의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이치에 맞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목적삼아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육체의 생사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든지 인천공항으로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한 인천공항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공생애는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까지 이끌고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모임을 갖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매달 모여서 회비도 내고 회식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이 3개월이 지나도록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결정된 대로 3개월을 더 기다리다가 제명하기로 합니다. 결국 제명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동호회에 대해 이 사람은 죽게 된 셈입니다.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곧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죽은 자

와 산 자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동호회에 마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모습은 육체가 죽어서 썩게 되는 모습을 연상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비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차이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오르심을 통해 만드신 길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하늘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에 참여함을 반복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죽은 시체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미스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안정된 삶의 조건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가지 않는다면 하늘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상관없이 죽어서 썩고 있는 시체와 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석박사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막강한 재력을 갖춘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위대하다 인정받을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천국에서는 시체와 다름없이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안정된 자리에 들어서고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안정을 찾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일은 아닙니다. 더 불쌍한 것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자리로 가기 위해 예수님을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썩은 시체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들이기에 더 불쌍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지 않았던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세상에서 안정됨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열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그 마음들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권이 이들의 삶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비로소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 장의 그림처럼 묘사한 사건이 바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내일 볼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두 광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과 연관 지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맞서 싸워 이기고 잔잔한 안정을 되찾고자 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낸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풍랑이 일어도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을 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하늘을 가진 자는 삶에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고 잔잔하다고 해서 안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안정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권이 임하는 대상이지 결코 내가 간섭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관계없이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 또한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든 않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병환자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세상과의 모든 관계는 끝이 나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성이고 제자로써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목적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관철한다면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나병환자처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모든 관계가 나병환자처럼 끊어지게 하시고, 끊어진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어코 하늘보좌 우편까지 감으로써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는 절대 평강의 소유자가 되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